

1. 토요성경학당에 오시면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2 교시에 개설된 “중간사”라는 과목이지요. 이 과목에서 자주 듣는 주제가, “제 2 성전”, 또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이지요.
2. 우리 나라 역사와 비교해 보자면, 일제 강제징용을 갔다가 해방을 맞아 되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피난갔다가 다시 수복해서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빗대어 보자면,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되돌아 왔다는 것입니다.
3. 구약의 역사기록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이 그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들이 3 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유다가 70 년 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 이어지지요.
4.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를 읽고 있는 우리의 자리란, 앞으로 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망함에서 회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된 자리에 서서 앞으로 다시 망하지 않을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유다가 망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이것을 2 가지로 정리해서 기록하는데, 첫째,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였다고 지적하지요. 이것이 국가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6. 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다? 아마도 이걸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사무치는 현실일 것입니다. 쿠데타와 내란, 또는 외환유치로 정권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그 원인인?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계엄을 말하는 장관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소리지요.
7.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여기서, 왕의 겸손하지 않음이란 곧 그의 교만을 말하고, 그 교만은 악으로서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8. 선지자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재차 그에게 권유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듣지 않았지요.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반박하자면 이것은, 남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음, 또는 다른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 소신을 악하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9. 그러나 역사기록은 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이 구원역사의 커다란 흐름과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밝혀주었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인지, 아니면 소신인지는 그후의 역사가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10. 두번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의 범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번째 원인이라고 한 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울곧음이 아닌 교만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1. 다시 역대로 돌아와서,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36 장 16 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고 했습니다.
12.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극적인 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습니다. 또 그의 말씀을 멸시하였지요. 그의 선지자를 욕하였습니다.
13.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제사장이란 자들도 선지자를 욕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이고, 제사장이란 누구란 말입니까?
14. 선지자를 목사라고 생각하실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 그리고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들이 협력하여 악을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첫째 말씀을 듣지 않고, 둘째 말씀을 멸시하고!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란 지적이지요.
15. 역사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시절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 교만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16. 역대하가 아닌, 오늘의 본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당시 시드기야 왕이 행했다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교만했던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의 역사 진행에 대하여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시드기야가 듣지 않고 있지요.
17. 28 장 첫 절에,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 년째 다섯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재위기간이 11 년이니까, 3 분의 1 이 조금 넘게 지났던 시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닌,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렘 28:2).**”
19.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거짓이란 소립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은 복음이지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지금, 그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 3 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세살이 이 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 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이 년 안에 다시 이 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가!
21.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는, 2 가지 오라클이 놓인 것이지요. 2 명의 선지자가 각기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세살이 멍에를 씌우리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그 멍에가 꺾였다”고 외칩니다. 하나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망해도 2 년이라는 것이지요.

22. 이 2 개의 소리가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와 말씀으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무슨 일이 된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애써 귀를 닫은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시드기야의 악이라고 부릅니다.
23. 그래서 악이란, 선택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대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판단의 주체이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24. 사람들은 말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레미야도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냐도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느 것을 택하든,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이다. 50 대 50 이다. 이때, 조금이라도 희망찬 오라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건,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25. 하나냐의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였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70 년이 아니라, 2 년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매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리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26.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편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습시다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양자역학에서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미리 공명하고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7.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란, 하나냐가 아닌, 예레미야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반대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고난과 질고를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런 일이지요.
28. 하나냐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을 독일말로 Wohlstandevangelium 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것들이지요. 어쩌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넣은 돈만큼 벤딩머신에서 캔을 꺼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자 악입니다.
29.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몰려가기 마련이지요. 지난날 한국의 교회의 성장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의심해 봅니다. 그런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